

REAL CONNECT

Real People & Talk

P.3 — P.8



Real On & Off

P.11 — P.12



SJCU Highlights

P.9 — P.10

VOL. 1

사람을

사랑하게 된 나 진정 이해하고

상담심리학과 졸업생 이영란

REAL CONNECT :

리얼 커넥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
사람과 학교를 잇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식지입니다.

리얼 커넥트 창간호 Vol. 1

발행일 —— 2015. 11

발행인 —— 김문현 총장

제작 —— 세종사이버대학교

기획 및 디자인 —— 홍디자인·홍시커뮤니케이션 02.6916.4400

사진 —— Sssauna studio(김경수, 김대원), 예원 스튜디오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설레었다. 심리학이 실용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3 담임 선생님의 반대가 있었고,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던 나는 “입시에 떨어지면 재수는 없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심리학을 전공으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결국 부모님과 타협하여 지원한 대학 4년은 의미 없이 지냈으며, 졸업 후 출판사에 취업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잊은 야근과 철야로 몸과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어느 순간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대인관계도 귀찮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친구에게 “너 우울증 걸린 사람 같아.”라는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아 서점에 달려가 우울증에 관한 책을 사서 읽었다. 책을 통해 현재 내가 가벼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약물뿐만 아니라 상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상담하는 일과 상담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며 일과 상담심리학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지원해 3학년이 되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일까. 첫 학기 동안 다섯 과목의 강의를 들으며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까지 치르는데 무척 힘들었다. 수업 양 또한 상당하여 따로 시간을 내 복습과 예습, 관련 서적을 찾아 읽는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또한 학과에서 진행

하는 특강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일과 공부가 같이 돌아가는 시기에는 정말이지 소리라도 내지르고 싶었지만,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신세였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어 만사 제쳐놓고 학과 종강모임에 참석했다. 교수님과 선배님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전 대학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친밀감이 몸과 마음에 촉촉히 스며들었다. 그 이후,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학습 요령을 터득하고 실천하니 시험을 치르는데도 한결 수월하고 성적까지 좋아졌다. 현재는 대학원에 진학도 하였고, 국가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게 상담심리학이지만 나의 열정은 여전하다. 그 이유에는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돋고 격려해주는 교수님과 학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자 중에서도 ‘사람 인(人)’을 가장 좋아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하여 하나를 이루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자립은 실로 어렵다. 상담심리학은 사람을 알고 돋는 학문이며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우기 힘든 학문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길에 서 있는 나는 그 고마움의 소중함을 알아버렸다. 이 고마운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 것 없는 힘이라고 할지라도.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이런 나의 꿈의 모태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

궁정을 조리하는 요리명장

조리산업경영학과

박효남

교수

32년간 봄담은 힐튼 호텔을 떠나 세종호텔 총주방장 겸 전무이사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산업경영학과 교수로서 새롭게 자리를 튼 요리명장 박효남. 수많은 교수직 제안을 고사하고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한 그에게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건네곤 했다. 그때마다 박효남 교수는 '바로 사이버대학교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의 38년 요리인생이 세종사이버대학교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이다.

○ 궁정으로 다진 38년 요리인생

18살 때부터였다. 장남으로서 기술을 배워 집에 보탬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박효남 교수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요리학원을 찾았다. 남자가 요리를 배우는 게 흔치 않은 시절이었지만, 특유의 근성과 꼼꼼함으로 그는 금세 눈에 띄는 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요리학원을 수료하고 하얏트 호텔 주방보조 자리와 첫 만남을 가진 게 고작 18살 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조리사면허증 획득' 단 세 줄이 전부인 이력서였지만 이제 시작인 그에게 그것은 모자란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궁정이에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후에도 교복 입은 동기들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들보다 사회생활을 더 빨리 시작한 셈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소여물을 썰다 오른손 검지 마디가 잘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나머지 9개 손가락은 남겨줬잖아요. 요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 앞에서 불만 대신 요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막내 주방보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 퇴근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부지런히 주방을 누볐고, 평소에는 삶은 달걀 하나를 가지고 다니며 손으로 감자 돌려깎기 연습을 했다. 그 노력으로 남들이 감자 3개를 깎을 때 10개를 깎게 되자



박효남 교수

한국인 최초로 밀레니엄

힐튼 호텔 총주방장에

임명되었으며 2014년

대한민국 요리명장에까지

선정되었다.

현재는 세종호텔

총주방장 겸 전무이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산업경영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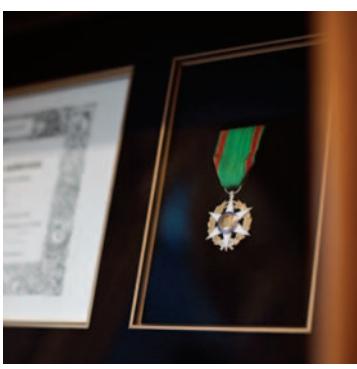
66

저를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은
궁정입니다

99

박효남 교수의 요리 10계명

- 하나. 깔은 항상 날카롭게 갈아들 것
- 둘. 최고의 사람들과 일하는 마음
- 셋. 자신이 일하는 곳을 항상 깨끗하게
- 넷. 재료를 현명하게 사용하라
- 다섯. 정확하게 간을 볼 것
- 여섯. 요리 온도란 어떤 것인지 터득할 것
- 일곱. 다양한 요리의 세계를 배울 것
- 여덟. 고전요리에 대해 잘 알아들 것
- 아홉. 비판을 잘 수용할 것
- 열. 자신만의 요리 일기를 쓸 것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공로상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남들보다 일찍 다음 단계의 일이 주어졌다. 누군가는 그의 성공을 단순히 놀라운 것이라고만 한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언제나 남들의 2~3배였다. 주방 보조에서 퍼스트 쿡까지 5년 만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다. “제 요리 철학은 ‘빈 접시를 확인하는 주방장이 되자’입니다. 저는 손님들을 식구로 생각해요. 어머니가 차리는 밥상의 정성스러움을 늘 새기지요. 요리는 주방에서 내보내는 게 끝이 아니고 맛있게 다 먹었는지, 남겼으면 무엇이 문제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직접 여쭤보고 피드백을 받으면 일일이 메모를 해두지요. 요리는 기계로 써어내는 게 아니에요. 손님 한 명 한 명의 입맛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맛에 대한 날 선 감각을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건 물론, 요리 전에는 항상 공복을 유지하는 박효남 교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맛을 보며 세세한 차이를 감별해내는 그는 자신의 요리를 뽑내기 위함이 아닌 손님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위해 여전히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며 한결같이 주방을 지키고 있다.

○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배움이 되다

1983년, 23살에 힐튼 호텔 창립 멤버로 스카우트된 그는 그곳에서만 꼬박 32년을 일했다. 전 세계 힐튼 호텔 체인 사상 최초의 현지인 총주방장에 오르게 됐고, 무려 10년간 재임하며 프랑스 요리의 대가로 이름을 굳혀왔다. 2014년 요리명장에 오르며 최고임을 인정받은 그이지만 박효남 교수는 아직도 배움을 강조한다.

“부족하면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주방 용어와 레시피가 온통 영어잖아요. 외국인 주방장과도 소통할 일이 많고요. 대충 짐작해 알아듣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하얏트 호텔에 있을 때 한창 요리를 익힐 때라 24시간도 모자랐지만 영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부지

런히 달려가 영어를 배우다보니 어느새 호텔 주방에서 저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방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었을 때쯤, 그는 집안 일 때문에 잠시 접었던 학업의 꿈을 꺼냈다.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그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 만큼 좋은 배움의 통로는 없었다.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들어오는 그를 위해 어머니가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녹화를 해주었고, 그 덕분에 그는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었다.

“수많은 교수직 제안 중에서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를 택한 건 제가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학문적인 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현장에 있으며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풀어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있는 각각의 현장에 가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온라인 강의이지만 학생들의 얼굴을 익힌 뒤에는 카메라가 모두 학생들로 보여 어색하지 않다고 말하는 박효남 교수. 특히 그는 학생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직접 학생의 가게를 찾아 메뉴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당장 1년, 5년 안에 총주방장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돼요. 최소 20~30년까지 길게 두고 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직과 함께 세종호텔 총주방장 겸 전무이사까지 맡은 박효남 교수. 지난 38년의 요리인생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38년은 세종호텔과 세종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웃어 보인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아직 혼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칼을 뽑았으면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덧붙인다. 박효남 교수는 그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줄 선배이자 스승이 될 것을 약속한다. **NN**

박효남 교수

한국인 최초로 밀레니엄
힐튼 호텔 총주방장에
임명되었으며 2014년
대한민국 요리명장에까지
선정되었다.

현재는 세종호텔
총주방장 겸 전무이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산업경영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다.

끝나지 않는 배움의 여정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원명 동문

공부에는 때가 없다. 남에게 떠밀려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시작하는 공부이기를 바랐다. 유원명 동문에게 그 '때'는 지난 2005년, 세종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하면서 찾아왔다. 학생회장으로, 장학생으로 이름을 올리며 누가 뭐래도 열정적인 대학 생활을 보냈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더 큰 배움의 밀그림까지 그렸다. 현업을 병행하는 동안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스스로 주도하는 배움의 재미를 느낀 유원명 동문. 동시에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동문들은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게 다가왔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미혼이라 일과 공부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면 저보다 더 대단한 분도 많아요. 일과 육아를 하면서 학업까지 병행하는 동문들을 보면 배움을 향한 열정이 큰 힘을 지녔다는 걸 깨달았어요.”

○ 여행, 삶의 갈래를 바꾸다

때때로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유원명 동문의 삶에서 여행은 남다른 의미다. 매일의 일상이자 생업인 까닭에 여행사를 운영하는 그는 단 하루도 여행에 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여행 상담부터 행사 인솔까지, 자신이 도맡아 일당 백으로 움직이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청해서 머슴 뜻을 한다. 대표로서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은 바람에서다. 여행이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수시로 일어나는 현장. 하물며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상황이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요청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면 제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소통 과정에서 일어난 세세한 부분들을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일정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직원과 대표의 권한이 다르니까 해결방법에도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고객들에게 여행 중 아쉬운 기억을 남기고 싶지는



유원명 동문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학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현재 여행사 대표로
고객과의 상담은 물론,
여행 도중 생기는
변수에 맞서 칠저하게
대비하여 고객들의
소중한 여행 중 좋은
기억만 간직하게 하고
싫은 마음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유원명 동문의 여행사 운영 철칙

주위 사람의 소개로 찾아오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하는 편이다.

66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작은 조언도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99



않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제가 직접 나서고 있어요. 카메라도 따로 챙겨 사진사 역할까지 합니다.”

여행이 취미를 넘어 업이 된 것은 우연이기도, 운명이기도 했다. 군 제대 후 일본으로 떠난 생애 첫 해 외여행. 동행 없이 홀로 간 여행에서 그는 진로를 바꿀 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당시 여행 프로그램을 인솔한 여행사 대표다. 일정 중 임시 루메이트로 방을 함께 쓰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누다 그 여행사에 입사까지 했다. 진로의 변화는 학업의 시작과도 맞물렸다. 유원명 동문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데에는 사이버대학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오면 진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잖아요. 사실 2000년도에 지방의 한 대학에 입학했는데, 당시만 해도 공부에 큰 뜻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나중에는 지방을 오가면서까지 그 학교에 복학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업을 이어갈 대안을 찾던 유원명 동문의 선택은 세종사이버대학교 편입. 오프라인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대학이 많지 않은 데다,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의 명성이 높았던 터라 커리큘럼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여행사 인수도 사회 생활과 학교 생활을 병행하던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2005년, 유원명 동문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바꿀 전환점을 두 차례 맞이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

○ 경험을 채우는 지혜의 삼

그렇게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다시 시작하며 사업에도 발을 디딘 유원명 동문. 열정과 의지가 넘쳐도 가끔은 실수하기도 넘어지기도 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더 열심히 배우는 것뿐.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도구였다. 공부에 뜻이 없던 시절

은 과거로 두고, 사회생활 중 틈틈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며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 인연이 없다 여겼던 장학생이 된 것은 물론,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동문 간의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잇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덕분에 졸업식 때는 총장특별상을 받기도 해 학우들의 부러움을 샀다.

“학과 선배 중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우리 학교 교수로 돌아온 분이 있어요. 선배를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강단에 서고 싶다는 꿈을 안고 대학원에 진학했죠. 지금은 사업에 열중하느라 잠시 학업을 멈추었지만 계속해서 할 예정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제가 배운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동문 모임인 ‘호관지우’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모임을 통해 동문들의 조언을 얻어 채울 수 있었던 까닭이다.

“지금이야 여러 나라에 방문하고 비행기도 수백 번 타봤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고객들이 제가 미처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문의해올 때면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적잖이 당황했죠. 그때마다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실천하는 동안, 경험이라는 자산이 그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교류하던 선배들과 꾸준히 연락한다.

“학교 생활에서도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이버대학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만 학업을 하는 거라 생각하면 오해예요. 오히려 사회 경험이 풍부한 분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며 오프라인 대학을 다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고, 만남을 통해 지혜를 키운 유원명 동문.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그에게 배움이란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 NN

유원명 동문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학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현재 여행사 대표로
고객과의 상담은 물론,
여행 도중 생기는
변수에 맞서 철저하게
대비하여 고객들의
소중한 여행 중 좋은
기억만 간직하게 하고
싫은 마음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신의 정보, 우리가 지킨다

정보보호대학원 이준영, 최진영, 정진수, 정석규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기업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최근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에 최고의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이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그 주인공은 사이버대학원 최초의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재학 중인 4인방 이준영, 최진영, 정진수, 정석규 학우. 지난 9월에 있었던 '고속 해시 함수 LSH 구현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까지 이루어 한 걸음 더 전문가의 길에 가까워지고 있다.

Q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을 선택한 이유

진수 정보관리기술사를 공부하고 있던 중 한 기업의 정보 보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어요. 암호학 쪽으로 관심은 있었는데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던 터라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알아보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죠.

진영 현재 정보보호 분야는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고, 많은 분야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현 업무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일반 대학원은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석규 블랙박스 소프트 개발 쪽 업무를 맡고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 정보보호 이슈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는 블랙박스 영상을 찍고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정보보호 관련 공부를 통해 블랙박스와 접목시켜 현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어요.

준영 회사에서 암호 모듈을 관리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정보보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정보보호대학원을 통해 정



이준영 학우

정보보호대학원 14학번으로
'NSHC' 재직 중이며 모바일
솔루션 쪽을 담당하고 있다.

최진영 학우

정보보호대학원 14학번으로
'지투지솔루션' 재직 중이며
블랙박스 암호 모듈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정진수 학우

정보보호대학원 13학번으로
현재 프리랜서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정석규 학우

정보보호대학원 14학번으로
'팅크웨어' 재직 중이며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66

자랑스럽게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99



'고속 해시함수 LSH 구현 경진대회' 상장

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어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어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학우들과 함께 준비하여 공모하게 되었어요.

Q 대학원 졸업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

진수 우선 정보관리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잘 치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사업도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진영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블랙박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정보보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회사 업무에 많이 활용하려고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개발 쪽 일만 하다 보니 스스로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통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정보보호나 빅데이터 등 신흥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오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석규 하는 일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일반적인 블랙박스가 아닌 정보보호 서비스까지 제공되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블랙박스를 내놓는 게 목표에요. 그만큼 암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준영 암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암호라는 자체가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다방면으로 해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 후 좀 더 깊이 기술력을 가져서 암호 쪽에서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Q '고속 해시함수 LSH 구현 경진대회'에 공모하게 된 계기

진영 정진수, 정석규 학우와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고속 해시함수 LSH 구현 경진대회'가 있다며 좋은 기회이니 함께 공모해보자고 하셨어요. 교수님 지도 아래 대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준영 작년에는 다른 주제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모해 우수상을 수상했

Q 대회 공모 주제에 대해

진수 저는 암호 모듈을 빠르고 용량을 적게 최적화 시키는 최적화구현분야에 공모했어요.

진영 제품에 암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활용분야에 공모했어요. 현재 업무와 관련해서 블랙박스 영상 파일 무결성 검증 활용 사례를 연구했어요.

석규 저도 마찬가지로 활용분야에 공모를 했고 암호를 블랙박스에 적용 시켰어요. 블랙박스를 주제로 한 펌웨어 무결성 검증 활용 사례로 출품했어요.

준영 현재 다니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모바일 솔루션 보안에 대한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적용시킨 활용분야에 공모를 했어요.

Q 이번 대회를 통해 느꼈던 점이나 아쉬운 점

진수 무엇보다 지도 편달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대회가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번 대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실히 보완하여 앞으로 계속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진영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리포트를 충실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료에 대해 교수님께도 아쉬운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결과가 잘 나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준영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욱 완벽한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석규 서로의 리포트를 공유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줬던 점이 좋은 결과를 내는데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꾸준하게 지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각자 받은 상금 중 절반을 학우회에 기부했어요. 앞으로 있을 특

이준영 학우

정보보호대학원 14학번으로
'NSHC' 재직 중이며 모바일
솔루션 쪽을 담당하고 있다.

최진영 학우

정보보호대학원 14학번으로
'지투지솔루션' 재직 중이며
블랙박스 암호 모듈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정진수 학우

정보보호대학원 13학번으로
현재 프리랜서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정석규 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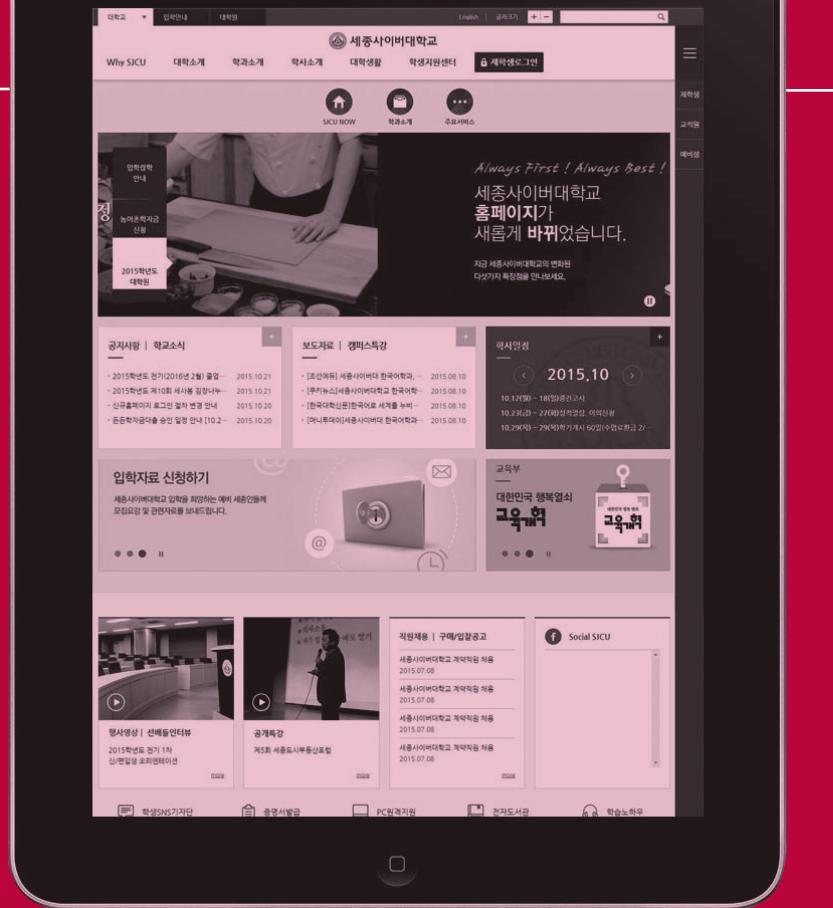
정보보호대학원 14학번으로
'팅크웨어' 재직 중이며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 쉽고 빠르게,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개편

지난 10월,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되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반응형웹으로 일반 PC부터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해진 디바이스에 대응해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빠르고 편리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http://home.sjcu.ac.kr>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동문 4인방 '한국수' 창업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수'는 '전국 팔도 국수를 한 자리에서 맛본다'라는 콘셉트로 외식창업프랜차이즈 학과 동문 4명 (유성길, 유창용, 박승보, 정현환)이 함께 창업한 곳이다. 1년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한국수'는 재미있는 콘셉트와 전국 팔도 국수의 이색 별미를 제대로 살려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중이다. 내년에는 호주 퍼스에 해외 1호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8-3,
T 031.462.3379

한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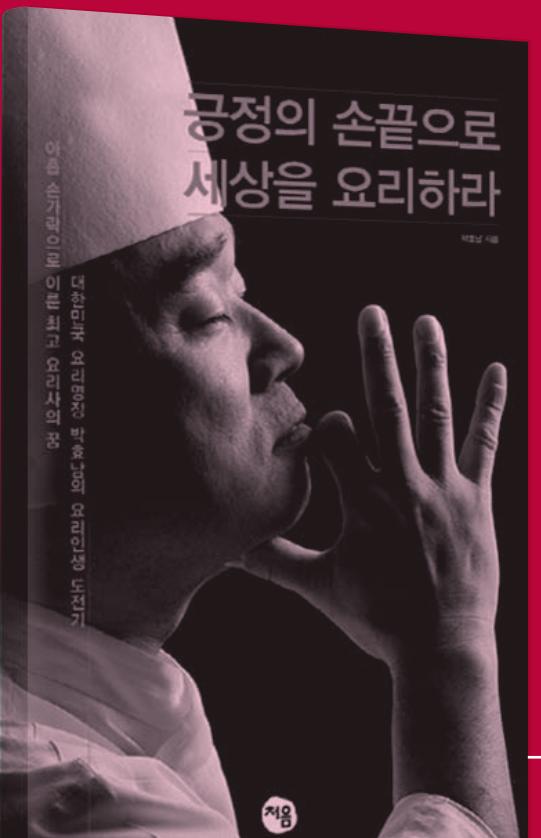
SJCU HIGHLIGHTS



박효남 교수 에세이 발간, '긍정의 손끝으로 세상을 요리하라'

셰프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대한민국 요리명장으로 선정된 조리산업경영학과 박효남 교수의 요리 인생이 담긴 에세이가 발간되었다. 요리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된 이번 에세이에는 박효남 교수의 긍정적인 인생 철학과 요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박효남 저, 처음 출판사, 2015. 7 발간



오프라인 강의 후 출출할 때, 주몽관 근처 맛집은 어디?

오프라인 강의 및 특강이 이루어지는 주몽관. 학업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기 아쉽다면? 주몽관 근처 맛집에서 출출한 배를 채우고 가자.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아는 맛집인 '신토통이 떡볶이'를 추천한다. 39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서울 3대 떡볶이 집으로 손꼽힌다. 거친 매운 양념 맛이 매력적이며, 핫도그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2-17

사이버대학교의 꽃, 온라인 강의

사이버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는 학업을 수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강의 콘텐츠의 질이 원격 대학의 생명'
이라는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콘텐츠 기획회의부터 영상촬영까지,
온라인 강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ON

AIR

온라인 강의는

'강의 콘텐츠의 질이 원격 대학의 생명'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온라인 강의 제작에 임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콘텐츠 개발부서. 콘텐츠 개발부서는 콘텐츠 개발팀과 영상 제작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 개발팀에서 맡은 주요 업무는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검수 및 질 관리까지 이어진다. 영상 제작팀은 학습 내용에 따라 실습실 혹은 전용 스튜디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촬영하고, 촬영 후에는 학우들에게 강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과 검수 과정을 거친다. 보통 한 학기 강의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제작 기간은 대략 7~8개월. 이 기간 동안 콘텐츠 개발부서는 각 팀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CU

사이 온라

사이버대학
강의는 학습
가장 중요한
세종사이버
'강의 콘텐츠'
이라는 원칙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
온라인 강의
그 현장을



- 1 교수님,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영상촬영 제작자가 모여 기획회의를 진행
- 2 교수님의 동작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대의 촬영 장비 동원
- 3 교수님, 영상 촬영 제작자의 모든 준비가 끝나면 큐시인을 보내 촬영을 시작한다.
- 4 모든 촬영이 끝나면 철저한 편집 과정을 거쳐 하나의 완벽한 강의가 완성된다.



온라인 강의

매일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제작 과정이 궁금했다면? 콘텐츠 개발부서에서 알려준 강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자.

강의 제작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강의 기획. 교수님,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영상촬영 제작자가 모여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공유한 후 사전 요구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수강하는 학우들의 특성을 고려해 강의를 기획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강의 콘텐츠 제작이다. 학습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 설계도를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영상 촬영에 들어간다. 실습 과목 촬영의 경우 정면, 옆면 등 다양한 각도에 카메라를 여러 대 놓아 교수님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자세히 보여주고, 일반적인 이론 강의 경우에는 영상 품질에 최대한 신경을 써 강의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강의 검수 및 질 관리 단계. 교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이나 강의 화법 등을 최종 검수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강의를 제작한다.

강의 제작시 꼭 필요한 SB

SB는 스토리 보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수님의 학습내용을 좀 더 쉽게 학우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포함한 일종의 강의 콘텐츠 설계도이다.

SJCU

보다 나은

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콘텐츠 개발부서는 학우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팀에서는 강의 제작 전 단계에서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사전에 실시된 요구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우들에게 알맞은 강의를 기획하고자 한다. 영상 제작팀도 영상 촬영 과정에서 강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강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촬영 방식을 선택하고 이후 철저한 편집 과정을 거친다.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지만, 최상의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작 과정을 거치며 심혈을 기울여 강의를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우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개발부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 최상의 강의 콘텐츠를 통해 더욱 학업에 열심히 임해보자. NN

FESTIVAL

9월의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2015 한마음 축제'가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팀 별로 나누어 진행된
명랑운동회부터 옛 음악을 통해
추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DJ Show까지, 풍성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우들이
한마음으로 즐겼던 그 뜨거운 축제
현장을 들여다보자.

소통 그리고 약속, 2015 한마음 축제

9월 12일 토요일 오전, 흐린 날씨 탓에 '2015 한마음 축제'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큰 기우였다. 축제의 식전 행사가 시작된 오후에는 날씨가 맑게 개어 축제에 참여한 학우와 동문, 그리고 교직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 학우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학우들이 함께 모여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하여 지금의 한마음 축제가 열리게 됐어요. 현재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마음 축제를 주최한 제 13대 총학생회 김태완 회장은 한마음 축제가 학우들을 잇는 하나의 추억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만큼 한마음 축제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 오후 1시가 되자 이번 축제가 열린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사전 접수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축제에 참여한 학우들이 네 팀으로 나뉘어 입장하기 시작했다. 학우들의 입장이 끝나고 김태완 총학생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장님과 외빈들의 축사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축제 시작에 앞서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2015 한마음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소통 그리고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2015 한마음 축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다양한 게임이 마련되어 있는 명랑운동회, 2부는 8090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과 사연을 소개하는 DJ Show로 뜻깊은 축제의 하루를 보냈다.



- 1 명랑운동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우들의 시상식
- 2 '날아라 행가래' 단체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학우들
- 3 으쌰으쌰 팀끼리 봉을 다리 사이에 끼고 달리는 릴레이 경기 중
- 4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이어달리기 주자들



14:20 - 17:00

2015
한마음 축제

2015

F

9월의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세종사이버

중 하나인

세종대학교

열렸다. 팀

명랑운동회

추억을 새롭

DJ Show가

프로그램으

한마음으로

현장을 들이



DJ show

19:00-21:00

- 1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하는 초대가수 이벤트
- 2 친목을 다지는 축제 뒤풀이 현장
- 3 세종사이버대학교만의 '복면세가왕' 이벤트
- 4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2015 한마음 축제 현장



서로를 응원하고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어색하게 주고받는

몇 마디의 말보다 땀을 흘려가며 함께 운동하는 것

이 빠른 시간 내에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열싸 안다,

친목을 다지는 명랑 운동회

사이버대학교는 학교의 환경 특성상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강이나 활동도 많지만, 학우, 동문들끼리 직접 마주하는 횟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따라서 축제나 연합 MT를 통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다진다. 2015 한마음 축제 1부로 진행된 명랑운동회는 친목을 다지기 위해 더없이 좋은 단체 팀 플레이 게임으로 구성되었다. 크게 네 팀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많은 학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 주를 이루었다. 대형 천을 이용해 팀원을 옮기는 '날아라 헹가래'부터 에어봉을 이용한 단체 릴레이 경기 'Let's go 행복열차',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치열하게 팀끼리 경쟁을 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팀을 응원하며 의미 있는 운동회를 즐겼다. 3시간 동안 진행된 명랑운동회를 통해 서로를 더욱 알아가며 학과별 친목, 학부의 단합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우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개최

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으로 강의가 주로 이뤄지다보니 오프라인

특강이 아니면 학우들끼리 얼굴 볼 기회가 흔치 않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연합 MT와 한마음 축제를 통해 학우들끼리

소통을 하고 친목을 다지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5

소소한 사연과

음악 하나로 감성 공감,

그때 그 음악 DJ Show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힌 2015 한마음 축제의 2부는 저녁 7시에 화려한 서막을 열었다. 이름하여 'DJ Show!'. 매년 한마음 축제 2부는 콘셉트가 달라지는데, 올해는 8090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며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음악과 사연을 소개하는 DJ Box의 형식을 빌렸다. 학우들의 사연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받아 진행하였고, 현장에서도 사연을 받아 학교와 학우, 교수님께 그동안 미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외 또 다른 이벤트로 진행한 '복면세가왕'은 최근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빌려 복면을 쓴 채 노래를 해 화려한 공연장 못지 않은 분위기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했다. 바쁜 사회에 치여가며 배움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세사인들에게 끌맛 같은 휴식을 안겨준 2015 한마음 축제. 숨가쁘게 달려온 축제의 시간이 끝나고 아쉬움을 뒤로 한채, 내년에 있을 한마음 축제를 기약하며 마무리되었다. ♪♪

외식산업을 선도하다, 외식프랜차이즈 학과

외식창업부터 경영, 프랜차이즈까지

우리나라에서 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 그만큼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외식산업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세대부터 은퇴 후 안정적인 노년과 일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창업을 하는 중장년층 세대까지, 외식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에 주목해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는 2005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학과로서 외식창업부터 경영, 프랜차이즈까지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이다. 다른 여타 대학과는 차별화되게 이론적인 학업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하우와 경험이 탄탄한 교수진들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가르친다. 일 년에 한 번씩 해외 탐방을 통해 외식업과 관련된 산업을 벤치마킹하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강의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있다. 현 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외식창업을 체계적인 노하우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STRONG POINTS

- 1 국내 외식창업/프랜차이즈 경영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교수진의 노하우 비법 강의
- 2 사이버대학교 최초 개설 학과로
외식창업 및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가 양성
- 3 동문 및 재학생간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
- 4 매학기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 창업 아이템 탐색 및 업계 탐방
- 5 대학원 진학과 자격증 취득 적극 지원
최고의 대학원 진학률,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 가능

세계의 외식산업을 배우다, 해외 벤치마킹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편견은 금물.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는 '해외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학업의 길을 뻗어 나가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해외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 상해로 향했다. 어윤선 학과장님 지도 아래 25명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참여해 중국 고유의 음식을 현지에서 맛보고, 문화에 대해서도 몸소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지만 딱히 큰 성공을 거둔 곳은 많지 않다. 전문적인 지식과 조사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진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뜻깊은 교훈을 깨닫고, 다시 한번 외식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VISION

국내 최초 & 국내 유일



고교 졸업생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여
미래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



외식기업 근무자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 프랜차이즈 시스템
기획자의 꿈



프랜차이즈 근무자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을
전문지식과 결합하여
미래 경영자로 성장



타산업분야 근무자

유망산업인 외식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평생 직업을 스스로
창출할 준비

배움에 대한 열정,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도 전기 신입생 모집

월 중 모집 예정

모집 인원

1과 (48명)

40명

대한 지식과 실무
, 외식경영, 마케
팅 연구를 위한 인
재를 통해 심도 깊
이 토론 및 발표, 오
디오, 또한 오프라
인하고, 지속적인
공 한다.

CATION

전공

영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균형 있게 학습

전공

네비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으로 학습

통 전공

유통에 대한
활용을 학습

외식산업을 선도하다, 외식프랜차이즈 학과

외식창업프랜차이즈 학과 ISSUE



‘스카이보드카 마스터 챌린지 2015’ 클래식 루키 1등, 김지유 학우

우리나라에서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를 위해 창업을 하거나, 다른 대학과는 다른 여타 대학과는 오랫동안 근무한 노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탐방을 통해 외식업계 오프라인에서도 넓은 견문을 넓히고, 잡아가고 있는 외식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지난 8월에 열린 ‘스카이보드카 마스터 챌린지 2015’에서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김지유 학우가 클래식 루키 부분에서 1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대회는 아시아바텐더협회 한국종 앙회에서 주최하고 아시아바텐더협회, 한국플레이바텐더협회, 한국음료칵테일협회가 주관하며 에드링턴코리아가 후원하는 대회로 국제호텔전문학교에서 진행되었다. 김지유 학우의 우승 소감과 함께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대회에 지원하게 된 계기 ?

바텐더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대회라고 생각한다. 수상보다는 현재 바텐더로서의 위치를 알아보고자 나간 대회였는데 1등까지 하게 되어 값진 상이라고 여겨진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를 선택한 이유 ?

앞으로 선택할 진로나 방향성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타 대학과 비교해 선택의 폭이 넓었다. 또한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실무적인 학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이에게 한마디 ?

외식문화뿐만 아니라 외식창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해 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식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꿈과 계획 ?

현재 칵테일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강단에서 외식산업의 음료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음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나가고 싶다.

- 1 국내 외식 실무경험
- 2 사이버대 외식창업
- 3 동문 및 동창 적극적인
- 4 매학기 학우 선진 창업
- 5 대학원 진학 최고의 대

배움에 대한 열정,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2011년 사이버대학원 최초의 정보보호대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2012년 경영대학원을 설립하여 사이버대학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주목 받는 이유는 전문 인력 양성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정보보안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경영인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경영대학원을 설립하여 스마트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창의적인 경영 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5년 11월 중 모집 예정
-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 정보보호학과(48명) MBA학과(40명)

MAJOR 1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대학원은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해킹 및 바이러스 전문가, 실무형 사이버 수사 전문가, 산업보안전문가 등 세 가지 전공 트랙을 통하여 인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온라인 강의이니만큼 원거리 국내 거주자는 물론, 국외 거주자도 학업 이수가 가능하다. 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전문업체와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기무사, 군장교 및 부사관, 경찰청, SI업체, 언론사 등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다.

ISSUE

한국암호포럼 경진대회 수상

2015 ‘고속 해시함수 LSH 구현 경진대회’에서 정보보호대학원 학생 4팀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KISIA MOU 체결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KISIA 와 정보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MOU를 체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EDUCATION

해킹 및 바이러스 전공

각종 보안 위협 요소로부터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는 실무형 보안 기술 전문가 양성

사이버수사 전공

국가 경쟁력 및 안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양성

산업보안 전공

다양한 산업체의 IT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

MAJOR 2

경영대학원 MBA학과

세종사이버대학원 MBA학과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실무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매니지먼트, 외식경영, 마케팅·유통 세 가지 세부 전공을 개설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생과 지도교수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심도 깊은 지도가 이루어지며 실시간 화상 세미나를 통한 토론 및 발표, 오프라인 강의 등 다각도 평가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논문 연구회를 통해 발전적인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산학협동을 통해 다양한 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ISSUE

2015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이정선 학우의 졸업논문을 기반으로 발표한 논문이 한국컴퓨터정보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학과장인 이민정 교수 역시 의료 산업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을 발표하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여 지도교수와 학생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DUCATION

매니지먼트 전공

전통적인 경영학에서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균형 있게 학습

외식경영 전공

외식분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

마케팅·유통 전공

마케팅과 유통에 대한 기초 지식과 활용을 학습

Sesabong

<http://cafe.daum.net/SJCU BONGSA>

세상을 이롭게 하다, 봉사 동아리 '세사봉'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에서만 서로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현재 봉사 동아리부터 산악동아리, 애니메이션 동아리, 골프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

그중에서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중앙동아리 '세사봉'을 소개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봉사 동아리의 줄임말인 세사봉은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봉사를 함께하는 모임이다. '배려하는 마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2006년 창설된 세사봉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까지도 초심을 잊지 않고 남을 돋는

다는 마음 그대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여러 지역 사회에 속한 소외된 계층들과 꿈과 희망, 행복을 나누고자 한다.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서로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매월 최소 1회 정도의 봉사 모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

들은 세사봉 모임을 통해 남을 도우며 뜻깊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학업의 연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 이론이 어떻게 남을 돋는 데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는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2015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나누기**
—
**세사봉에서 11월에
'2015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10번 째를 맞는
세사봉의 큰 행사로 독거
노인들과 장애인 시설에
김장을 통해 사랑과 희망의
나눔을 전달하고자 한다.
행사는 주동관에서 열릴 예정.**



'세사봉' 나원호 회장에게 듣는 봉사 이야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되새기는 나눔의 의미

세사봉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양평 천사의 집'과 '군자 작은 예수의 집'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트에서 음식 재료를 구입해 요리해서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목욕봉사와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어요. 매년 11월에는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학우들간에 유대 강화는 물론, 봉사활동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봉사라는 이름

23년 째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늘 저보다도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접해왔죠. 세사봉과 인연을 맺은 이후로는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봉사활동을 간 어느 날,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우가 제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넣어주더라고요. 아주 작은 밤틀 하나였는데, 그 작은 밤틀로 그 친구는 저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나눔 그리고 사랑

누구나 처음에는 장애우들에게 다가서기 힘들 겁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와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앞서고요. 하지만 독거 노인과 장애우 후로는 우리의 부모이며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만큼 그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 주위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1월에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나누기' 행사가 있는데 많은 학우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르네상스 맨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공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해도 모두들 힘들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학우 여러분들을 저는 항상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학문의 출발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학문이 철학부터 출발하여 가지를 치면서 세분화되었습니다. 한때는 종교와 학문이 분리되지 않아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맞아 학문과 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학문은 세분화되지 않고 종합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융합, 통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다방면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르네상스 맨'이라고 부르죠. 자연과학이 인문과학과 분리되고 자연과학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학이 등장합니다. 도로, 교량 건설 등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을 나폴레옹 3세가 민간에 활용하면서 민용 기술(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로 분류되었습니다. 영국 베밍햄, 독일 류르 지역에서 석탄 활용기술이 개발되면서 화학공학이 등장하고 산업혁명과 전력 발전기술이 개발되면서 기계공학, 전기공학으로, 다시 전기는 전자,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끝없이 세분화되어 기술 영역 간에 벽이 세워져서 한계점에 도달했다가, 이제 다시 콘텐츠는 인문, 예술 영역과 융합되고 있습니다. 서구 학문이 분석적이라면 동양학문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합적입니다. 옛날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 첫날 하늘 천(天)을 배워 오랫동안 이 하나의 글자만 공부합니다. 여기서 초보 수준이지만, 요즘 용어로 말하면 우주의 생성부터, 천문기상학까지 섭렵합니다. 인재 등용을 위한 과거 시험도 문학, 사학, 철학의 종합 문제가 출제된 셈이죠. 그러니 외국인들은 '조선은 철학자들이 국가를 경영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나는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전공이 다른 친구들과 만나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르네상스 맨'이 되십시오.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운현



Real On & Off

P.13 — P.14

Real SJCU

P.15 — P.17

